백두산

4호 - 주체91(2002)년 4월 18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비전향장기수들이 편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립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마음의 기둥이시고 생의 은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온 나라가 경모의 꽃바다로 설레이고 태양찬가가 누리를 진감하는 뜻 깊은 이 아침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세계정치의 대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력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 없는 민족최대의 명절로, 인류공동의 대축전으로 가장 성대히 기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우리 비전향장기수 일동은 삼가 가장 열렬한 인사를 드립니다.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민족사에 금문자로 길이 빛날 4월의 대명절을 태양의 성지 평양에서 맞이하게 되는 저희들은 지금 무한한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전 생애를 바쳐 오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숭엄한 마음으로 력사에 아로새겨 진 아흔돌기의 년륜을 감회깊이 돌이켜 봅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수난 많은 민족의 아드님으로 탄생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80고령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로 영생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습니다.

력사에는 이름난 위인도 많았지만 10대에 벌써 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탁월한 지도사상을 창시하시여 태양의 존함을 받으셨고 20대와 30대에 조국광복과 새 사회건설,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이룩하시고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였으며 한 생애에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신 우리 주석님 같으신 위대한 수령,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알지 못합니다.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한몸에 안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가장 정확한 조국통일로선과 방략을 제시하시고 우리 겨레를 자주와 단합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위대하시고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로선이 정당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참으로 현명한 것이였기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지나온 세기의 곡절 많은 년대들을 오직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 올수 있었으며 우리 겨레는 신심과 용기에 넘쳐 민족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 올수 있었습니다.

수십년 세월 남조선의 감옥에 갇히워 있던 저희들이였지만 수령님을 따르는 그 성스러운 대오의 일원이였기에 죽음이 엄습하는 모진 고통과 시련도 꿋꿋이 이겨내고 그처럼 그립던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으로 다시 돌아 올수 있었습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 모두의 가슴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잇닿은 남다른 사연들이 소중히 간직되여 있습니다. 꿈에도 바랄수 없었던 행복을 넘치도록 안겨 주시고 광휘로운 인생길을 열어 주신 그 고마움을 눈에 흙이 들어 간대도 잊을수 없는 저희들이였기에 원쑤들의 고문장과 사형장에서도 가슴을 쭉 펴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 높이 웨치며 굴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우리 겨레가 반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높이 모신 만고절세의 위대한 태양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들의 심장속에 계시여 저희들은 언제나 신심과 용기 드높이 두려움을 모르고 굴함없이 싸워 파쑈교형리들을 전률케 하며 승리자의 생을 빛내일수 있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대하가 물결쳐 흐르고 있는 이 시각 저희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 것은 수령님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이 땅에 수령님의 력사가 변함없이 영원히 흐르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고결한 충정의 세계, 의리의 세계입니다.

생전에 우리 수령님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출중한 위인도 없지만 수령영생위업을 이룩하시고 인민을 변함없이 당과 수령에게 충성 다하도록 이끌어 주고 계시는 우리 장군님과 같은 위대한 후계자도 력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고 자신께서는 수령님을 받드시던 어제날의 그 자세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은 오늘 인류가 따라 배워야 할 혁명적의리와 도덕의 최고화신으로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은 천추만대로 이어 지고 빛나며 태양절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영원한 봄명절로 환희로우며 우리 조국은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무궁번영할것입니다.

하기에 저희들은 뜻 깊은 이 아침 어버이수령님께 못다한 충성까지 합쳐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인류의 희망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나갈 불 타는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집니다.

저희들은 비록 육체의 힘이 진한다 해도 심장의 피 한방울 남을 때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앞장서 받들며 장군님께서 그토록 심려하시는 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해 신념과 의지의 강행군을 계속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태양조국의 어제도 찬란했지만 장군님 존함과 더불어 길이 빛날 래일은 더욱 창창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장군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사는 온 나라 인민들과 더불어 저희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며 희망입니다.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2 태양절 90돌 특집 4
- 한평생을 조국통일대업에
- 민족단합의 대회합, 4월남북연석회의
- 민족대단결 5대방침
- 민족대단합의 불멸의 총서

5 종합
- 태양절에 즈음한 오익제선생 편지
- 당,국가지도간부들 금수산기념궁전 찾아
- 주석님의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
- ≪아리랑≫축전용 역사유적코스 개발
- 남북실무접촉의 성과와 의의

7 노작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 나가자(4)

9 세기와 더불어
- 6장 5절 단합의 이념아래 (2)

11 노동신문 사설
-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영원히 백전백승할 것이다 (2)

12 투쟁보도
- F-X공동행동, 2차 범국민대회
- 문정현 신부의 미대사관앞 노숙투쟁
- 美 F15-E 부품 수급체계 심각
-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토론회
- 진보정당 지방선거 참여 논의 활발
- 호화빌라 실소유주는 이회창?
- 금강산연대, ≪엽서보내기≫ 캠페인
- 발전산업 민영화 대책 토론회

15 운동강좌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열가지 논제(3)

한평생을 조국통일대업에 바치신 김일성주석님

우리 겨레는 세계 진보적 인류와 함께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90회 탄신절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역사의 이날에 즈음하여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는 경애하는 주석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속에서 그분께서 조국광복의 그날로부터 반세기를 이어오며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불면불휴의 노고와 민족사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 보게 된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가장 절절한 염원이였다. 주석님께서는 나라의 분열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였으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생의 마지막 시각까지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자신께서 우리 민중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장장 반세기동안 어느 하루도 쉬임없이 나라의 통일성업실현을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를 다 바치시며 조국과 민족 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미국의 한국강점과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이 계속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시종일관 자주통일노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시였다. 그분께서는 광복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이남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역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이도록 하시였다.

범민족대회 참가자들을 접견하시고 강령적교시를 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1989.7)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서 통일노선과 분열노선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졌다. 이 시기에 주석님께서는 내외분열주의자들의 영구분열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시였으며 격폐상태에 있던 남과 북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남북사이에 공동성명과 합의서들을 채택케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주석님께서는 급변하는 국내외정세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1971년 8월6일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분단사상 처음으로 1972년 5월 평양에서 남북사이의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였으며 회담차로 평양에 간 남측대표를 접견하신 자리에서 오랫동안 구상하시고 무르익혀오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시였던 것이다. 그분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걸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남과 북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내외분열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 더욱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을 때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 보고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과 북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관한 중대한 통일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이 방안은 남과 북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고려하여 연방국가형성의 원칙과 방도, 통일정부와 지역정부의 임무 및 호상관계, 연방국가의 기능과 성격, 연방국가의 국호에 이르기까지 통일국가의 창립과 그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가장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 되고 있다.

주석님께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 주시였다. 이북의 제정당, 사회단체들로 하여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준비위원회와 같은 민족공동의 협의기구를 내올데 대하여 제의하도록 하셨고 민족통일촉진대회 소집, 남북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 소집 등을 제의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수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해 1985년에 남북사이에 적십자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의 상호 방문이 실현되었으며 조국광복 40주년을 계기로 전민족적 범위에서 조국통일열망이 더 한층 높아지게 되였다.

이에 당황한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은 반북소동과 전쟁연습을 전례없이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길로 나아갔다.

이때에도 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시기 위해 단계별 대규모적인 무력감축제안과 10만명 인민군병력 축소조치, 86년 남북고위급 정치회담제안, 88년 쌍방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남북연석회의 소집방안 등 여러가지 합리적인 협상제안들과 조치들을 연이어 취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국제무대에서 세력균형이 파괴된 기회를 이용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있지도 않는 북의 ≪핵문제≫를 걸고 군사적 압력과 경제봉쇄 등 고립압살책동을 강화하고 외세와 야합한 반통일세력들의 민족영구분열책동으로 한반도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도 그를 타개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였다. 당시 우리 겨레 앞에는 전민족의 대단결로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느냐 아니면 동족끼리 계속 반목대결하면서 대국들의 희생물이 되느냐 하는 사활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주석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한 경험과 성과를 집대성하시어 1993년 4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내놓으시었다. 이 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으로서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이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하는 민족단합의 대헌장이며 기치이다.

주석님께서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 주시었다.

한평생 오로지 민중의 행복과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기 바로 몇시간 전인 1994년 7월7일 조국통일과 관련한 중대한 문건을 보아주시고 생애의 마지막 존함친필을 남기시었다.

참으로 **김일성**주석님은 한평생 오로지 조국통일을 위해 다 바쳐오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어버이이시다.

주석님의 조국통일성업은 오늘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영수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할 확고한 결심과 드팀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신다.

영수님께서는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주체적 노선과 방침들을 고수하고 관철해 나가시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계신다. 영수님께서는 1997년 8월4일 발표하신 명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주석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변함없이 거머쥐고 나아가야 할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해 주심으로써 통일의 억센 기둥을 세워주시었다.

김정일영수님의 대용단에 의해 분단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갖게 되었다.

그분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에 의해 오늘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가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운동에로 총매진하고 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영수님 계시어 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조국통일위업은 가까운 앞날에 기필코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이동국 - 구국전선
주체 91, 4월 15일

민족단합의 대회합, 4월남북연석회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김구선생을 만나주시었다. (1948.4)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에 참가한 ≪신민당≫당수로 활동하던 허헌선생을 반가히 만나주시었다. (1948.4)

4월남북연석회의는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고 민족영구분열의 위기를 가시기 위해 사상과 정견, 신앙이 각이한 모든 애국적 정당, 단체들이 과거를 불문하고 얼마든지 단결할 수 있고 힘을 합쳐 통일방략도 함께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자못 크다 하겠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37(1948)년 3월 25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제26차 회의에서 미국과 그 주구 이승만일파의 민족분열책동으로 우리 민족 앞에 드리운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자주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남북 정당, 단체대표자들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발기하시었다.

주석님의 발기에 의해 소집된 이 회의에는 이북에서 북조선 노동당과 조선민주당을 비롯한 3개 정당 12개단체와 이남에서 근로인민당, 신진당 등 41개 정당, 단체 등 남과 북의 56개 정당, 단체성원 1천여만을 대표하는 6백 95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1948년 4월 19일 평양모란봉극장에서 막을 올린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치하게 미국과 이승만일파의 망국적인 5.10단선을 규탄하고 그것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민족분열을 우려하는 각당, 각파, 각계층 민중들을 하나의 거족적인 민족통일전선에 결집시킬 것을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충만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보고를 열렬히 지지찬동했으며 사상과 정견,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통일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진지하게 토의했다.

대표들은 한결같이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경모의 정을 표시하고 주석님의 현명한 영도에서 국난타개의 밝은 전도를 찾았다.

당시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한국독립당위원장 김구씨는≪조선은 참으로 훌륭한 주인을 만났소. **김일성**장군님께서 영도하셔야 조선은 행복하게 될 수 있소.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가겠소.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요≫라고 감격에 겨워 말했다.

또한 민족자주연맹 주석 김규식씨는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군사지략과 정치를 겸비하신 걸출한 영웅이시오. 그분의 정치보고를 읽어도 그렇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그분은 참으로 식견이 넓으시고 분석력과 통찰력이 비범하신 분이시오≫ 라고 하며 주석님을 민족의 구세주로 높이 칭송했다.

회의후 이남에 돌아온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연석회의 참가자들과 민족주의인사들은 공개기자회견, 공개성명 등을 통해 주석님의 출중함과 이북의 민주건설성과를 적극 홍보했으며 연석회의에서 토의하고 결의한대로 ≪단선단정≫을 반대하고 통일적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해 과감한 반미구국통일운동을 전개했다.

그들은 그해 7월 21일 서울에서 한국독립당, 민족자주연맹을 비롯한 80여개의 정당, 단체대표들을 망라해 민족통일전선을 지향하는≪통일촉진협의회≫를 무었으며 미군철수와≪북진통일≫반대의 구호밑에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다.

참으로 역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는 민족이 있고서야 정당도, 주의주장도 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남과 북의 모든 애국적 정당, 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사상과 정견,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털어 놓고 나라의 통일방책을 토론한 민족단합의 대회합이었다.

남북연석회의를 계기로 그때까지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와의 대연합이 실현되게 되었다.

이것은 사상과 이념, 신앙과 재산의 차이에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며 과거 민족앞에 불미스러운 죄를 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애국의 길에 들어선다면 불문에 붙이고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을 명시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폭넓은 민족단합방침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4월남북연석회의가 있은지 53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 앞에는 미국과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물리치고 기어이 조국통일을 성취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

시대와 역사 앞에 나선 이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하자면 온 겨레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헌장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통일애국의 길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특히 오늘 우리 앞에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마련된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성스러운 과제가 나서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각당, 각파, 각계 애국민중은 분열은 매국이고 통일은 애국이라는 대의밑에 애국애족의 일념안고 주의주장과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단합해야 하며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강력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각계층 애국민중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일구월심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그분께서 가리키시는 통일애국의 길로 힘차게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구국전선 - 주체90, 4월 21일

민족대단결 5대방침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주체87(1998)년 4월 18일

1.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2.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합니다.

3.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4.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5.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연합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민족대단합의 불멸의 총서

오늘 우리는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중의 지향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제시하신 역사적인 4.18저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발표 4돌을 맞이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주체87(1998)년 4월18일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 50돌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보내주시었다.

영도자님의 저작은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역사적 문헌이며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데서 제기되는 제반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불멸의 민족대단결 총서이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저작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 가장 폭넓은 민족대단합사상으로 정식화하시었다.

또한 민족대단결의 길에서 쌓아 올리신 주석님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었으며 그 정당성과 불패의 활력을 과학적으로 논증하시었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저작에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역사적인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천명하시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남과 북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 반통일세력을 반대해 투쟁하며 온 민족이 서로 접촉, 대화하고 연대연합을 강화할데 관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단결의 기초와 이념, 그 실현을 위한 과제와 방도들을 완벽하게 밝히고 있는 민족적 단합의 대정치강령이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민족대단결위업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역사적 이정표로 된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거기에 관통되어 있는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숭고한 이념으로 보나, 현실적인 실천방도로 보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민족대단결강령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결국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걸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애국애족은 민족대단결의 사상정신적 기초이고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 요구이다. 우리 민족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 나가는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며 더욱이 민족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겪어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 요구로 나선다. 우리 민족의 이런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 기질,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민족대단결의 튼튼한 사상적 기초로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위한 선결적 요구이다. 남북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언제가도 민족적 단합을 이룰 수 없고 조국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해 투쟁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

동포들사이의 내왕과 접촉, 대화와 연대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우리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자유로이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연대연합을 강화해 나가면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해 뜻과 힘을 합칠 수 있다.

참으로 **김정일**영수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현시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 해답을 주는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김정일영수님께서 민족대단결의 대강을 밝혀주신 것은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로 광폭정치, 인덕정치의 새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그분의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과 탁월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로서 조국통일위업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준 불멸의 민족사적 공적으로 된다.

각계 애국민중은 **김정일**영수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가열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조연택 - 구국전선 주체91, 4월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오익제선생이 편지

위대한 령도자님께 삼가 드립니다

위대한 령도자님

끝 없는 환희와 성스러움이 하늘땅에 가득찬 태양절이 왔습니다.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어버이주석님의 탄생 9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저는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주석님의 위업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령도자님께 삼가 축원의 큰 절을 올립니다.

태양절은 민족과 인류를 위한 자주적삶의 영원한 송가이며 인류의 광명입니다.

저는 이 경사스러움속에서 누를길 없는 감회에 잠겨 진리에로 돌아 가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인간이 인간으로 살게 하고 민족이 민족으로 살게 하는 이 세상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재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나라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민족의 새 력사는 위대한 주석님에 의하여 비로소 시작되였으며 주석님에 의해 발전되여 왔습니다.

그것은 말그대로 주석님의 불멸의 력사입니다.

오랜 기간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수난 당해 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주석님의 력사처럼 소중하고 거룩한 력사는 없습니다.

걸음걸음 험로를 헤쳐 오신 주석님의 력사속에서 인류최고봉의 선진사상인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가장 성스러운 위업인 주체위업이 승리하여 왔습니다.

그 력사속에서 민족이 재생되고 주체의 조국이 건설되였으며 이 땅에 일찌기 볼수 없었던 사람과 자연과 사회를 참답게 변모시킨 천지개벽이 일어 났습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찾고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일떠세운 가장 존엄 높고 영광스러운 력사입니다.

주체의 태양으로 만민의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주석님의 위업은 오늘 주체위업 완성의 사명을 지니시고 주석님의 력사를 이어 세기의 령마루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님에 의하여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령도자님께서는 주석님의 뜻을 받드시여 자주의 강국을 더욱 튼튼히 다지시고 민족의 자주의지를 5천년 민족사상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 놓으셨으며 민족번영의 전성기를 펼치시였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족문제를 옳게 결합시켜 주체성과 민족성이 훌륭히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회주의를 건설하시고 사회주의와 함께 민족주의요구도 다 같이 실현시키신 령도자님의 공적은 주체위업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으뜸 가는 고귀한 진리와 정의는 령도자님께 있으며 령도자님의 비범한 예지와 령도실력은 세인을 경탄시키고 있습니다.

령도자님의 부단한 저술활동에 의하여 인간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인류사적과제가 현실적인 과학적 방도를 가지고 확신성 있게 실천에 옮겨지고 있으며 령도자님의 가장 현명하고 독창적인 선군정치에 의하여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이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제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 막고 또다시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광분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자멸을 가져올뿐입니다.

태양절을 가지고 있는 공화국은 불패의 성새로 이 지구우에 높이 솟아 무궁할것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은 반드시 통일된 강성대국의 승리봉에 높이 오를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령도자님을 모신 전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여생을 바쳐 령도자님께 충성 다함으로써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령도자님께서 계시여 조선반도에 평화가 있고 통일조국의 강성번영이 있으며 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완성이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력사적위업의 성취를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당, 국가지도간부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15일 평양에서 그이께 경의를 표시하는 행사들이 있었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우당 위원장들, 당,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사회단체 책임일군들이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였다.

주석의 립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선률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주석의 립상을 우러러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홀에 들어 선 그들은 그이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은 주석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여해 드린 훈장과 메달들, 울음홀에 모신 그이의 태양상과 동부각상들, 그이께서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시 리용하신 렬차와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리용하신 승용차를 돌아 보았다.

이날 항일혁명투사들과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각급 기관 일군들, 인민군 군인들, 시내 각계층 인민들이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였다.

또한 ≪한민전≫평양대표부 대표가 이곳을 방문하였다.

해외동포대표단과 방문단들, 재중항일혁명투사, 항일혁명투쟁 연고자가족일행들, 조선주재 외교단과 무관단, 여러 나라 당대표단과 대표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과 대표들도 궁전을 찾아 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16일

평양시내 여러 곳과 각지에 모신 주석의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15일 조선인민군장병들과 각지 인민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한민전≫평양대표부 성원들은 그이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평양시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동상앞에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주석의 동상에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 인민군부대, 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또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 해외동포대표단과 방문단, 조선주재 외교단, 무관단,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기구대표들의 꽃바구니들도 진정되였다.

이날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보안성, 조선예술영화촬영소, 평양학생소년궁전 등 평양시내 여러 곳과 각지에 모신 주석의 동상에도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한편 함경북도 청진시에 모신 주석의 동상에 30여개의 중국 동북지방의 꽃바구니 증정대표단들과 청진주재 중국총령사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1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인 김영남, 전병호, 최영림 등이 야회에 참가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동포들, 조선에 온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대표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 조선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야회에 초대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16일

≪아리랑≫축전용 역사유적 관광코스 개발

동명왕릉

이북은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아리랑≫축전 기간 평양시에 있는 고구려의 유적.유물을 참관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특별히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최근호(4.10)에 따르면, 이북은 대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기 위해 평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비, 고구려 역사유적을 접할 수 있는 △단군릉 △동명왕릉 △광법사 △모란봉 △대동문 △련광정 △숭령전 등 7개 역사탐방 코스를 지정했다.

관광객이 어느 한 곳을 선택해 관람할 수 있는 이들 7개 코스 가운데 즐거움을 최고로 만끽할 수 있는 곳은 역시 모란봉.

조선신보는 지난 겨울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모란봉 일대에는 평년보다 일찍 진달래.두봉화.개나리가 활짝 피어 ≪아리랑≫축전 기간이 되면 온갖 꽃이 만발하고 각종 나무에도 새싹이 움터 더욱 아름답게 단장된다고 전했다.

청류정.을밀대.평양성.현무문.최승대.칠성문 등의 순으로 이어지는 모란봉코스 중 사방의 경치가 한눈에 안겨온다고 해서 예로부터 ≪사허정≫이라 불려온 을밀대는 높은 봉우리에 있어 대동강 너머로 평양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이북 국보유적 제1호인 평양성은 높이 4m부터 10m 정도까지 쌓은 돌성벽이다. 장방형모양의 돌과 돌을 접착하는 흙은 모두 구운 것이어서 부식작용이 없으며 약 1천500년이 지난 오늘도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일명 ≪행복의 문≫으로 불리는 칠성문에는 돌번이란 총각과 시내라는 처녀의 애틋한 사랑의 전설도 깃들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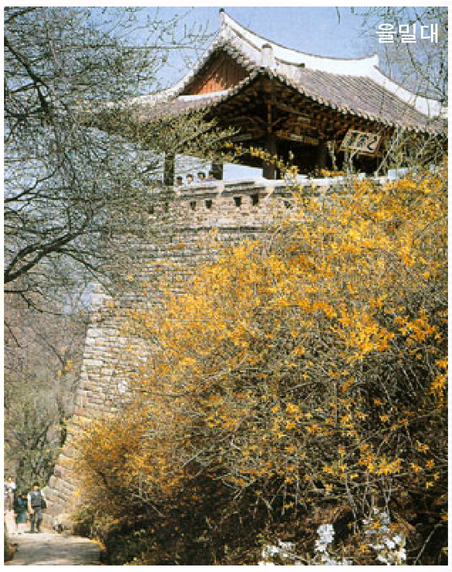
현무문과 최승대는 모란봉의 중심코스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생략할 수 도 있다.

모란봉

모란봉코스의 맨 마지막인 ≪천리마동상≫ 앞의 주차장에 이르면 결혼식을 올린 후 기념촬영에 여념이 없는 신랑.신부들도 만나볼 수 있다. 이곳은 일년 내내 신랑.신부의 기념촬영이 줄을 잇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한편 모란봉 등 대부분은 도보관광 코스로서, 걷기가 불편한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한 코스도 별도로 마련했다. 즉 광법사를 참관한 다음 대성산을 돌아보는 코스로 소요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다.

광법사는 392년에 창건됐다가 한국전쟁 당시 크게 파괴된 것을 복원했다. 해탈문과 천왕문을 지나면 본당인 대웅전이 있고 이곳 내부에는 석가모니불이 앉아 있어 참배도 할 수 있고 안에 들어가 돌아볼 수도 있다.


을밀대

광법사를 참관한 다음에는 해발 200m를 넘는 소문봉.장수봉 등 6개 봉우리가 있는 대성산성으로 향한다. 소문봉에서는 3~5세기에 고구려인들이 돌로 쌓은 성벽과 평양시내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특히 대성산에는 소나무가 무성하고 꽃도 만발할 뿐만 아니라 사슴.꿩.딱따구리.다람쥐 등이 포장도로에 자주 나타나 관광객들을 즐겁게 한다.

관광 안내원 한영옥(27.여)씨는 ≪4월부터 6월 사이 평양은 일기조건이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꼭 찾아오세요≫라고 당부했다.

최선영기자
연합뉴스 2002/04/16

남북실무접촉의 성과와 의의

이번 남북 실무 접촉의 성과와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착되어 있던 남북관계에 진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남북공동보도문≫을 전민족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실천을 결의한 것이다.

≪남북공동보도문≫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 반통일수구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해 나갈 것을 천명한 제2의 6.15공동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6.15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간섭과 방해를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헤쳐 나감으로써 6.15공동선언을 기필코 이행해 나가겠다는 민족적 의지가 담겨 있다.

둘째, ≪남북단체공동성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올해 통일운동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에 의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전개해 나갈 것≫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다 아는 것처럼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반대배격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자는 것이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다. 순조롭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우여곡절을 겪은 것도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전쟁책동,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반통일수구세력의 사대매구적인 민족분열책동 때문이었다.

≪남북공동보도문≫은 이러한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에 맞서 투쟁한 전민족적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를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전환적인 해로 만들자는 강력한 민족적 의지의 산물이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하다.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면서도 부당한 특별사찰 압력을 들이대는 것은 물론 대규모핵전쟁연습을 벌려 놓으며 전쟁소동을 더욱 고조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 파탄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박한 과제이자 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내외 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그대로 두고는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며, 남북관계도 결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민족공멸의 전쟁으로 치닫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외세에 의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민족이 단결하고 힘을 합쳐 투쟁해야 가능하다고 할 때 이번 ≪남북실무접촉≫은 이를 당면한 최대의 민족적 과제로 놓고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 것이자 중대한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셋째, 이번 ≪남북단체실무접촉≫은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연대연합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북단체공동성명≫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통일의 길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한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다. 그동안 전반적 정세가 긴장되어 있는 조건에서도 민간차원의 접촉과 대화가 큰 성과를 내어 왔던 것도 통일연대와 7대종단, 민화협 등 여러 단체들이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연대연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미국과 반통일세력은 통일운동단체들을 이간 분열시키기 위해 온갖 악랄한 방해를 일삼아 왔다.

지난해 8.15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한 여론몰이나, 올 초 ≪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 에 통일연대 소속 성원들의 참여를 가로막음으로써 대회를 무산시킨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번 ≪남북단체 실무접촉≫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반통일세력의 이러한 분열책동은 일단 저지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범남본, 범청학련, 한총련 등 그 어떤 단체도 배제됨이 없이 다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실무접촉≫에서 6.15돌을 맞아 남과 북, 해외가 다함께 참여하는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하게 개최하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그동안 범민족대회와 이를 계승한 민족통일 통일대축전은 8.15광복절을 기념하여 열려 왔다. 올해를 계기로 앞으로는 6.15에 민족통일대축전을 개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것은 6.15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대장전으로 확고히 굳히자는 민족적 결의를 담고 있다.

즉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날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 가는 날≫로, 민족공동의 ≪통일절≫로 확고히 자리매김함으로써 앞으로 어떠한 정세가 조성된다하더라도 6.15공동선언이 민족적 생명력을 갖고 통일의 길을 열어 가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민간차원의 접촉과 대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벌여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남북 실무접촉은 어느때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남측 대표단이 통일연대, 7대종단, 민화협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환경, 문화예술, 보건의료, 언론 등 각부문의 실무대표들을 포괄하여 19명으로 구성되었고 북측도 민화협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옴으로써 전체적인 협의와 함께 각 부문별 협의들이 진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소중한 결실을 거두기도 하였다. 올해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 연대연합이 어느 때보다 다방면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남북 여성통일대회와 청년학생 통일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며, 특히 그동안 통일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환경 등 시민운동단체들이 교류 협력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연 통일연대 정책위
통일연대 홈페이지 통일칼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 나가자(4)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 주체91(1992)년 4월 17일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는데서 문학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 기간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좋은 영화와 소설을 비롯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수령님의 회고록과 새로 발굴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보급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전설적 이야기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합니다.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는 오늘과 같은 다양한 선전수단이 없었지만 인민들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설로 전해들으며 신심과 희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80성상에 이르는 수령님의 혁명역사는 그 갈피갈피가 전설적인 이야기로 엮어져있으며 그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고귀한 것으로 빛을 뿌릴것입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전해지고있는 수령님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발굴하여 적극 소개선전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당의 의지입니다. 수령님의 영도를 받들고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온 사람들이 지녔던 충실성이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짐에 따라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흐려지고 변질되면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충실성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발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고한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온 혁명의 1세대와 새 사회 건설의 어려운 투쟁을 벌려온 혁명의 2세대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귀감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대를 이어가면서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새 세대들속에서 발휘되는 충실성의 모범도 적극 찾아내고 선전하여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합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모든 사람들의 확고한 신념과 양심, 도덕의리가 되고 일상생활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충실성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지난날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곧잘 외우던 사람들가운데서 사회주의의 배신자가 나오게 된것은 그들이 말로만 충실성에 대하여 부르짖고 그것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여줍니다. 충실성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더욱 실속있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충성과 효성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할줄 모르는 확고한 혁명적 신념과 양심, 도덕의리로 간직하며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는 여기에 그 창시자이신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빛내이는 길이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귀중한 사상적 양심입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풍모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학습을 체계적으로 실속있게 하여 그들이 주체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노작과 당문헌은 주체사상의 총서입니다. 수령님의 노작과 당문헌에는 주체사상의 원리와 주체사상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 문제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령님의 노작과 당문헌 학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자면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그것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철학사상이며 우리 당의 모든 사상이론은 주체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여있습니다. 주체철학의 본질과 내용, 독창성과 우월성을 옳게 인식하여야 그에 기초하여 전개된 우리 당의 모든 사상이론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습니다. 주체철학은 순수 이론을 위한 철학이 아니라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을 정확히 밝혀준 철학입니다. 주체철학연구에서는 실천적으로 의의없는 문제를 가지고 공리공담을 할것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문제를 푸는데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주체철학뿐아니라 주체의 사상이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주체의 사상이론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위한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이론실천적 문제를 원리적으로 해명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우리의 경험에 대한 선전도 널리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업적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주체사상과 함께 그것을 구현하여 이룩한 우리의 경험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이룩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경험을 잘 해설선전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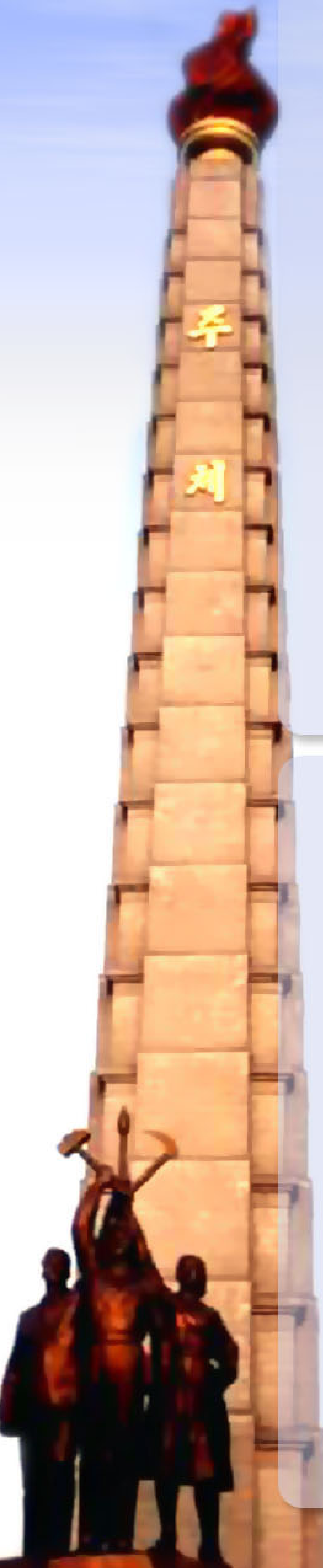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혁명적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오늘 부르죠아사상은 주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통하여 들어옵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반동적 부르죠아사상에 의하여 사람들이 변질되고 노동계급의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말아먹게 된 것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그 어떤 사상문화적 침투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정주의는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역할을 거부하고 혁명을 포기하는 반혁명적 독소입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노동계급의 수령을 헐뜯는 반혁명적 범죄행위가 감행된 것은 바로 수정주의가 대두한데 기인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한때 사대주의자들이 수정주의를 밀수입하려고 하였지만 우리 당은 그것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였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사회주의 나라에서 수정주의가 머리를 쳐들면 부르죠아자유화바람이 불어와 당이 변질되고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병들게 되며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이 중도반단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정주의를 철저히 배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 나라에 퍼지고있는 부르죠아복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부르죠아복귀주의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로 되돌려 세우는 반혁명적 사조입니다. 현대수정주의는 이제 와서 가면마저 벗어버리고 공공연히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로 되돌려세우는 부르죠아복귀주의로 전락되였습니다. 현실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되돌아가면 발전과 번영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영락, 실업과 빈궁, 범죄와 사회악이 판을 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부

→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영예를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가는 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여기에 우리 인민의 영원한 긍지와 행복이 있습니다.



르죠아복귀주의의 반동적 본질과 해독성을 똑똑히 알고 그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속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는데도 계속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사람이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게 되면 자기 수령, 자기 당을 따르지 않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게 되며 그렇게 되면 혁명도 할수없고 민족의 자주성도 지킬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사상적 조류로서는 극복되였으나 그 잔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소홀히 대하지 말고 그것을 철저히 극복하여야합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수령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혁명의 1세대, 2세대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고생도 모르면서 고이 자란 3세대부터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일부러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게 하거나 앞선 세대가 겪은 것과 같은 고생을 겪어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혁명적 세대로 키우는 문제는 사상교양과 단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시기의 교양과 단련은 사람의 일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빠르므로 주위환경의 좋은 영향뿐아니라 나쁜 영향도 쉽게 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먼저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자유화바람을 불어넣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학생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이번에 다른 나라 벗들은 우리 청소년학생들이 하는 대집단체조를 보고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청소년학생들을 잘 교양하지 못하여 녹아났는데 조선에서는 저런 훌륭한 청소년학생들을 가지고있으니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면서 부러워하였습니다.

우리는 건전하고 혁명적인 새 세대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혁명적 교양과 단련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교양에서 주체사상원리교양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은 가장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귀한 혁명업적과 경험을 전면적으로 담고있는 것으로 하여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 양식으로 됩니다.

새 세대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이 백두산에서 수령님을 받들고 싸우던 항일혁명투사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새 세대들이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중요한 전선에 떨쳐나서 청춘의 지혜와 정열을 바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오신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을 위한 일이 잘되고 인민들이 좋아할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것이 곧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보장하여드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한다는 것은 다름아닌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수령님의 의도대로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은 당과 수령이 내놓은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우리 식 사회주의길로 억세게 싸워나갈 확고한 신념과 불타는 열정에 넘쳐있습니다. 문제는 일군들이 인민들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조직지도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작전을 잘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인민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조직동원하는데서 일군들이 옳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늘 가르쳐주신대로 언제나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일군들속에서 혁명적 군중관점을 옳게 세우고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최근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기에 만족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혁명적 단련이 부족한 새 세대들이 간부대열에 끊임없이 보충되는 조건에서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리지 않으면 세도와 관료주의가 되살아날수 있습니다.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자면 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교양을 위주로 하여야 하지만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군들이 직권을 악용하여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제때에 문제를 세우고 강하게 투쟁하며 그 정도에 따라 당적, 법적 제재도 가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하자면 군중속에 들어가는 것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범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일군들이 군중속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웠습니다.

모든 일군들은 당에서 세운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상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것이 당의 일관한 구호이며 일군들이 군중과 한순간도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의 요구입니다. 모든 일군들은 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영예를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가는 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여기에 우리 인민의 영원한 긍지와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과 효성을 다하여 높이 받들어 모심으로써 조선민족의 긍지, 주체조선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

2권 제6장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2. 마지막 모습
3. 기쁨과 슬픔
4. 합작은 불가능한가?
5. 단합의 이념아래
6. 구국군과 함께
7. 소사하의 가을
8. 라자구등판에서

5. 단합의 이념아래 (2)

류하지방의 혁명운동을 앙양시키는데서 걸린 고리를 을 풀자면 최창걸을 비롯하여 이 일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첫 당조직성원들과 공청핵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였다. 우리가 한해전부터 련계가 두절된 최창걸의 행방을 찾으려고 그처럼 애쓴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최창걸을 만나면 일제의 만주강점이 현실로 되고 무장투쟁이 개시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남만지방에서 혁명을 어떻게 심화발전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론의를 할 수 있으며 그에게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었다. 최창걸은 남만지방에 파견된 우리의 대표나 다름없었다.

류하는 ≪ㅌ.ㄷ≫의 결정에 따라 그가 활동한 구역이었고 그와 여러가지로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고장이였다. 최창걸은 독립군생활도 거기서 시작하였고 화성의숙에 입학할 때에도 거기서 량세봉의 추천을 받았다.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최창걸은 출신중대에 돌아가 독립군 참사로 복무하면서 류하지방을 중심으로 남부만주의 광활한 지역에 ≪ㅌ.ㄷ≫의 판도를 넓히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바치었다. 그는 류하에서 활동할 때 금천현성에 잇는 일본영사관분관을 습격하는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류하와 흥경을 비롯한 남부만주일대에서 ≪ㅌ.ㄷ≫의 대오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김혁, 차광수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창걸의 눈부신 투쟁과 능숙하고 세련된 사업전개능력에도 기인된다. 그는 새사조의 출입금지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립군들 속에 들어가 생활하면서도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보적인 독립군대원들속에서 의식화작업을 주동적으로 하여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신봉자로 개조하였다. 최창걸이 사람들과의 사업을 얼마나 통이 크고 대담하게 하였는지 그를 통솔하던 지휘관은 심지어 그가 주둔구역으로부터 10리나 떨어진 곳에 가서 몇달씩 정치공작을 하여도 상급에 보고하지 않고 눈을 감아주었다.

류하는 종파분자들과 반공모략에 이골이 난 민족주의 보수파분자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던 곳이었다.

최창걸

엠엘파분자들은 반석현에서 주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내여 남만의 민족주의단체들과 대결하였고 혁신파와 보수파의 대립으로 분열직전에 있던 독립군내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좌파인물들은 화요파, 서상파와 손을 잡고 민족단일전선조직을 서두르고 있었다.

현묵관, 고이허를 위시한 보수파인물들은 공산주의 사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반동공세를 벌이었다.

이런 복잡한 분위기속에서 최창걸은 류하지구에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그 대열을 급속도로 늘려나갔다.

종파분자들은 주중청총이 중국에 있는 조선청년들의 유일한 조직인데 류하반제청년동맹이라는 것은 또 무슨 단체인가고 하면서 트집을 걸었다. 엠엘계의 종파분자들은 류하반제청년동맹내부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이색분자들도 잡입시켰다. 그들은 반석지방으로부터 수십명의 청년들은 끌어들여 다니거우에 집결시키고 몽치단이라는 테로단을 무은 다음 삼원포에서 독립군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는 거짓정보를 제공하고는 경찰과 연합하여 반제청년동맹간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망동까지 부렸었다.

그때 최창걸은 그들의 추태를 저지시키고 동맹의 핵심들을 폭행속에서 구원해주었다.

최창걸은 종파분자들의 도발에 군사적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았다. 그는 원래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데서 대범한 성미를 지니고 있었다. 후에 카륜에서 나를 만난 최창걸은 종파쟁이들의 곤장에 살을 찢기고 피를 토하는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보면서도 자기가 총탄을 발사하지 않고 리성을 발휘할 수 있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류하로 갈때 제일 기뻐한 것은 차광수였다. 그는 최창걸과의 상봉을 눈앞에 그리면서 어린애들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최창걸과 마찬가지로 차광수도 류하와는 범상치 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최창걸이 량세봉의 수하에서 륙혈포를 차고 돌아다닐 때 차광수는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였다. 그때 그들은 서로 뜻이 맞아 동지로 되었다.

≪이 최창걸이가 눈은 높은 사람이지만 첫눈에 차광수한테 반했드랬소. 겉보기는 털렁광창인데 속은 온통 노다지더란 말이요. 저 친구 머리속에는 칼, 맑스가 여라문명 올방자를 틀고 앉아있소.≫언제인가 최창걸은 차광수와의 첫 교우를 회상하면서 이런 롱을 하였다.

≪최창걸이가 만일 아가씨라면 저 털렁광창을 제일 선참 랑군님으로 삼겠소. 그런데 길림의 아가씨들은 모두 소경들이 된 모양이거든.≫ 차광수는 그 롱을 들으면서 씨물씨물 웃기만 하였다.

길림시절의 차광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총각이었다. 그래서 최창걸은 늘 차광수의 중매는 자기가 선다고 하였으며 털렁광창이 말을 타고 새각시네 집으로 가는 날에는 견마잡이도 자기가 한다고 희떠운 소리를 하였다.

마주서기만 하면 나는 형님이고 너는 동생이니 형님대접을 잘하라는 식으로 허물없는 롱질과 입씨름에 열을 올리군하는 두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참으로 만사람이 부러워하고 시샘을 느끼리만치 친밀하고 열정적인 것이었다.

그 우정은 류하와 흥경, 철령 일대를 중심으로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대렬을 확대해나가던 나날들에 더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최창걸은 차광수와 함께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고산자지부도 결성하였으며 왕청문을 중심으로 흥경현, 류하현, 반석현을 비롯한 남만의 여러 현들에 사회과학연구회라는 명칭을 가지 계몽단체들도 조직하였다.

사회과학연구회는 맑스-레닌주의와 조선혁명의 지도리론을 연구보급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었다. 그 운영방법은 지금의 통신대학체계와 비슷하였다. 1년에 보름가량은 농한기를 택하여 청년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해주었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몇달에 한번씩 이동강의도 해주고 필요한 학습교재들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계몽시키었다.

사회과학연구회 성원들은 참고서를 놓고 강의에서 받은 내용을 자체로 학습한 다음 한주일에 한번 정도 모여앉아 토론회를 가지였으며 리해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 서면질의응답의 방법으로 배운 지식을 완전히 소화하였다.

남만청총대회가 소집되던 그해 가을에 류하에서 사회과학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차광수의 설명을 들은 나는 그 운영방법의 독창성과 참신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이 연구회를 이끌어나가는 세 전우(최창걸, 차광수, 김혁)를 통이 크고 창조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들이 실천속에서 창조해낸 운영방법은 어려운 지하투쟁의 조건에서도 머리를 잘 쓰면 청년들을 시대의 선각자, 력사의 개척자로 훌륭히 교양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구에 있게 될 최창걸과의 상봉을 눈앞에 그리며 삼원포방향으로 행군대오를 인솔해가는 내 가슴도 차광수 못지않게 울렁거리었다.

카륜에서 첫 당조직을 뭇고 그와 헤어진지도 만 2년이 되어오고 있었다. 그동안 최창걸은 류하, 흥경, 해룡, 청원, 반석을 비롯한 남만의 광대한 지역들에서 당조직들을 내오고 각종 대중단체들을 확대하며 조선혁명군의 한개 대대를 지휘하면서 상비적인 혁명무력 건설에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1931년 봄에는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를 동방혁명군으로 개칭하고 그 지휘관이 되었다. 나에게 소식을 전해준 최창걸의 련락원은 그가 국민부 반동파와의 알륵때문에 고심한다고 말하였다.

그후로는 류하와의 련락도 두절되었다. 나는 이것이 은근히 불안스러웠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은 그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아무데나 텁벙텁벙 내대는 타고난 모험가이고 락천가라는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테로를 만능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한 국민부의 테두리안에서 그 반동파들의 주시를 받으며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였다. 국민부의 시각으로 볼때에는 요시찰대상에 속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왕청문사건이 있었던 그해 말에 국민부반동들은 최창걸, 최득혁을 비롯한 6명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여 대우구라는 곳에서 처형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은 력사에 류하사변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새 사상을 지향하는 국민부내부의 혁신세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반동파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었다. 피해자인 최창걸자신은 파시스트화된 국민부상층에 대한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갈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류하지방에 박근원을 보내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전달하게 하였다.

≪국민부와의 충돌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백해무익하다.

반일을 지향하는 동족사이에 류혈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 왕청문에서 6명의 동지를 억울하게 잃고도 피눈물을 머금고 참아온 우리가 아닌가. 매사에 심중하며 경거망동하지 말것이다.≫류하사변이 있은 후 국민부는 1930년 8월에 있은 조선혁명당 집행위원히와 대표회의를 계기로 두개의 진영으로 분렬되었다. 현묵관, 량세봉, 고이허, 김문거, 량하산 등이 기존방침의 고수를 완고하게 주장하고 그 실현을 강요해나선데 대항하여 고원암, 김석하, 리진탁, 리웅, 현하죽, 리관린 등의 소장파 인물들은 조선혁명당을 인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파시스트적인 정당으로 락인하고 그를 해체하여 무산자들을 대표하는 계급혁명의 전위로 되게 하는 동시에 재만조선농민들을 계급적으로 령도해야 한다는 혁신적이고 방향전환적인 주장을 하였다.

이와 같은 리념상의 알륵으로부터 두 파는 서로 상대방을 타도하고 매장하기 위한 피투성이싸움을 벌이었다.

국만부파는 봉천성정부의 량해밑에 중국관헌들과 군경들까지 매수리용하여 반국민부파를 숙청하는 테로전에 달라붙었다. 그 과정에 그들은 리진탁을 비롯한 5명의 상대편 인물들을 암살하였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반국민부파도 국민부본부를 습격하여 4중대장인 김문거를 총

→

살하였다. 그후 반국민부파는 탈퇴성명을 내고 국민부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반국민부위원회라는 단체까지 만들어내었다.

최창걸의 신변에 대한 나의 걱정은 이런 정치적배경에 바탕을 둔것이다. 삼원포로부터 한마장쯤 떨어진곳에서 나는 행군대오에 속보로 걸으라는 구령을 내리었다. 최창걸을 한시바삐 만나고싶은 조바심이 우리의 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나 삼원포에 도착하여 최창걸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고장 조직원들이 그가 희생되었다는 비보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최창걸은 고산자공청지부의 사업을 지도하다가 국민부우파놈들에게 체포되어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이었다. 반일인민유격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찾아온 삼원포공청지부의 박가성을 가진 청년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하였다. 그는 국민부테로분자들이 최창걸을 금천현 강가점에 유인해다가 학살하고는 공산당밀정이기 때문에 처단했다는 여론을 퍼뜨렸다고 하였다. 어떤 청년들은 해룡과 청원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활동하다가 피살되었다고 하였다.

이렇든저렇든 최창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나 분해서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도 흘릴수 없었다. 언제나 한모습으로 변함없이 열에 끓고 정에 넘치던 ≪ㅌ.ㄷ≫의 건아가 어쩌면 한 릉선에서 맞본 슬픔에 뒤이어 우리의 마음속으로 무자비하게 기습해온 또 하나의 커다란 슬픔이었다.

무장투쟁이 력사무대에 군복을 입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총성이 만주의 광막한 대륙에 새로운 시대의 서곡으로 높이 울리고 있던 격동적인 나날에 최창걸과 같이 충실한 전우가 희생된 것은 우리 혁명을 위해서 정녕 가슴아픈 손실이 아닐수 없었다.

차광수도 내옆에 앉아 폭양속에 시들어가는 풀밭을 눈물로 적시고 있었다.

나는 최창걸의 유가족들을 만나고싶어 부대를 데리고 고산자로 향하였다. 최창걸의 부인은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사내아이와 시동생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였다. 그 부인이 참으로 강의한 녀자였다. 그 녀자는 우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에게 남편의 소원이 총을 잡고 왜놈들과 싸우는 것이었는데 그 남편을 대신하여 자기가 싸울 수 있도록 유격대에 받아달라고 청원하였다.

우리는 예정을 바꾸어 유가족들의 곁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아침 부대가 고산자마을을 떠날때 최창걸의 미망인은 멀리까지 우리를 따라나와 바래주었다.

나는 무슨 말로 녀인을 위로했으면 좋을지 몰라 아이를 안아들고 그 애의 볼을 다독여주었다. 이가 두개밖에 나오지 않은 사내애는 신통히도 아버지를 닮았다. 아이는 나의 얼굴을 만지면서 ≪아빠≫, ≪아빠≫하였다. 그 광경을 보고 애어머니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었다. 나도 눈물이 저려올라 아이의 볼에 볼을 대고 한참동안 고산자마을쪽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아주머니, 이 애를 잘 키워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합시다!≫나는 목이 메여 그보다 더 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부대가 고산자를 떠나서 5리쯤 왔을 때 우리가 너무도 침통해하는 것을 보고 김일룡은 최창걸을 추모하여 조총을 울리자고 제기하였다. 조총이라도 울리면 우리의 기분이 좀 전환되지 않겠는가 하는 타산을 한 모양이었다. 역시 풍상고초를 많이 겪어본 김일룡의 속마음이 웅심깊은데가 있었다.

≪소문만 듣고서는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시신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조총부터 올리겠습니까.≫

몽강을 거쳐 량강구에 도착한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정보를 입수하였다. 무송지방에 은거하고 있던 20명가량의 독립군이 70-80명으로 구성된 중국인민무장부대와 합세하여 우리 부대를 습격하고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음모의 기안자가 바로 국민부산하의 독립군이었다. 그들은 몽강에서부터 량강구방향으로 이동하는 반일인민유격대의 행군로정을 내탐한 다음 중국인반일부대에 우리 부대가 공산군주력부대라는 것을 련락하였다. 독립군은 중국인반일부대와 함께 반일인민유격대가 통과하게 될 마을을 미리 차지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에게 이 정보를 제공한 것은 량강구에 있는 공청원들이었다. 그곳에는 내가 아는 조직원들과 청년들이 많았다. 우리가 량강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나에게 이 내막을 알려주었다.

유격대원들속에서 국민부테로분자들을 타도하고 최창걸의 복수를 하자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이 바로 그때였다. 류하의 청년들이 국민부의 테로분자들을 요정내고 남만청총대회때 괴모산골짜기에서 학살된 6렬사의 원쑤, 최창걸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고 부르짖을 때만 하여도 나와 목소리를 합쳐 그들을 달래던 동무들까지 지휘부로 찾아와 우리의 자제력에도 한도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한번 싸움을 본때있게 하여 버릇을 떼주자고 하였다. 그런데 버릇을 떼준다는 것도 말은 쉽지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우선 력량상으로 볼 때에도 상대는 우리보다 더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런 대비는 큰 문제로 되지 않았다. 제일 난처한 것은 상대가 적아닌 적이라는 것이었다. 항일구국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무장부대들끼리 서로 맞총질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1930년대초기의 혼란된 시국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만화라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었다.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이 합작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공격한다는 것도 괴이한 일이었다.

싸움을 하면 물론 승패는 갈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싸움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다 도덕적인 규탄을 면치 못하는 법이었다. 승자는 목에 걸어줄 월계관도 있을 수 없거니와 패자의 희생을 동정할 눈물도 있을 수가 없었다.

중국인민무장부대를 잘못 건드려놓으면 우리의 활동에 수습할 수 없는 난관이 조성될 수 있었다. 모처럼 성사된 구국군과의 공동전선은 깨여지고 우리는 다시 남의 집 뒤골방에서 무기소제나 하며 세월을 보내던 초기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독립군부대를 치는 것도 그만 못지 않은 악후과를 낳을 수 있었다. 공산군부대가 독립군부대를 치면 인민이 우리를 외면하고 랭대할 것이었다. 반공분자들은 좋은 때를 만났다고 공산주의자들을 헐뜯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었다.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이 서로 총구를 마주대고 혈전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독립군은 송화강 건너편에서 그런 혈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1932년 여름을 생각하면 그때의 일이 제일먼저 떠오른다. 그때 나는 밤잠도 자지 못하고 이 맹랑한 문제를 민족단합의 경륜과 항일구국의 대의에 맞게 처리할 방도를 찾느라고 마음을 썩이었다. 그 일때문에 십년은 감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공동의 적인 일본군과는 싸움 한번 변변히 해보지 못하면서도 동족인 우리하고는 금수도 낯을 붉힐 수치스러운 분노와 혐오를 금할 수 없었다. 지휘관들과 상론해보니 그들도 다같이 노기충천하여 국민부파시스트들에게 철추를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아 떠들었다.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단단히 버르장머리를 떼줍시다. 그들이 죽어서 지하에 가더라도 두번다시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히는 일이 없도록 혼쌀을 내줍시다.≫ 차광수는 눈에 불꽃을 튕기며 국민부의 손에 쓰러진 동지들의 원한을 갚을 때가 왔다고 부르짖었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무장부대들은 어느것이나 다 적인 셈이었다. 독립군도 적이고 구국군도 적이고 마적도 홍창회도 대도회도 다 적이었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이런 역경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 부대가 구국군의 별동대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류본초와 같은 증인이 없는데 있었다. 우리는 류본초와 같이 유력한 증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언제나 사면팔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걸머지고 있었다.

우리가 통화에 갔다오는 사이 우사령부대는 안도에서 철수하여 왕덕림부대와 함께 녕안현일대로 깊숙이 퇴각하였다. 안도는 자유지대로 남아있었다. 자위군은 싸움을 크게 해보지도 못하고 일본군에 속속 투항하였다. 그 당시의 자위군의 일부는 벌써 반만항일의 구호를 내던지고 일본군고문들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반동군대로 되었다. 중국인반일부대가 공산군주력군으로 알려진 우리 부대를 감히 소멸하려고 결심한 것은 그들이 일본군의 지휘를 받는 반동군대로 전락되었기 때문이었다.

국민부의 반공선전에 청맹과니가 되다싶이한 독립군의 잔당은 우리에 대한 진속도 모르면서 반동화된 반일부대를 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나는 심각한 사색을 거듭했다. 상대가 아무리 토비화되고 우경화된 군사집단이라고 하여도 한피줄을 나눈 동족이고 또 구국투쟁에 몸을 바치고 있던 사람들인 것만큼 우리로서는 군사적 방법에 의한 보복이나 제재를 추구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나 그들을 정치적 방법으로 설복하여야 하였다. 우리는 이토록 반일통일전선을 절대화하였다.

이렇게 되어 박훈을 책임자로 하는 몇동무가 독립군이 머물고 있은 이도백하로 떠나갔다.

≪박훈동무, 오늘은 총대신 입이 동무의 무기요, 총은 한방도 쏘지 말고 입으로써 독립군들을 설복해야 하오. 동무는 말주변도 좋고 인상도 씨원씨원한 사람이니 능히 그들을 감화시켜 미연에 족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어떤 경우에도 무력행사는 절대금물임을 꼭 명심해야 하오. 우리가 여기서 총성을 한방만 울리면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끝장이 날수 있소. 어떻소? 동무의 성미에 맞지 않는 과업인데 꽤 해낼 수 있겠소?≫내가 이렇게 묻자 박훈은 웃으면서 머리를 긁적거리었다.

≪까다로운 과업이긴 하지만 해보겠소.≫

나는 박훈을 떠나보낸 다음에도 송화강반을 오래도록 거닐었다. 오늘밤만을 제발 총성이 울리지 말았으면 하고 우려와 걱정도 없지 않았다.

물론 그는 능력있는 선동가였고 수완가였다. 그러나 일단 성만 나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그의 곰같은 성미가 나로 하여금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박훈의 그런 약점을 알면서도 그를 독립군의 진영으로 서슴없이 들여보낸 것은 우리 부대에 그를 릉가할만한 활동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 분야에서 박훈과 견줄수 있는 인물은 차광수였다. 정황을 보면 마땅히 그가 한몫할 때였다. 그러나 차광수는 최창걸의 희생에 대한 소식을 접한 때부터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자기를 다잡지 못하고 있었다.

(박훈이, 부디 성공하고 돌아오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거듭 뇌이면서 이도백하쪽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다행히도 내가 우려하던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독립군은 애국력량의 단합을 절절히 호소하는 우리 동무들의 해설에 감화되었다. 그들은 저들 상층부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행동에는 옮기지못하던 우유부단한 태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무장을 바치고 우리 반일인민유격대오에서 같이 싸울 것을 흔연히 결의해 나섰다.

독립군의 상층은 아직 우리와의 통합을 달가와하지 않았지만 하층병사들은 대결이 아니라 합작을 하고 힘을 합쳐 같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기꺼이 우리와 손을 잡게 되었다. 이것은 독립군과의 통합의 첫시작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또하나의 어려운 고비를 무난하게 넘기였다. 량세봉과의 결렬에다가 최창걸의 희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덧붙여져 국민부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참을 수 없게 되살아오르던 그때 우리가 민족대단합의 경륜을 위해 20대의 젊은이들로서는 쉽지않은 도량과 인내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만일 그때 우리가 리성을 잃고 복수감에 사로잡혀 국민부를 타도하였거나 독립군대원들과 무장대결을 하였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떳떳한 마음으로 후대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300여명에 달하는 량사령의 부하들이 엄동설한에 합작의 기발을 들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오는 력사적 화폭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 애국애족처럼 위대하고 순결하고 신성한 감정은 없다.

민족단합정신은 애국애족의 감정가운데서도 그정수를 이루는 최고의 넋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을 위해 출범한 그 첫기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민족단합의 리념을 변함없이 소중하게 간직해오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끝)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영원히 백전백승할 것이다 (2)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4월 15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강성대국건설의 길에서 끝없이 흐르고 있다. 조국은 수령이며 수령의 력사는 조국의 부강번영속에서 빛나게 된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 주시고 일떠세워 주신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계제일강국으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계신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락원의 길을 열어 주고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해 주시였으며 오늘도 무한대한 열정과 투지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는분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과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기간공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수령님의 유훈교시들이 빛나게 관철되고 있다. 대자연개조사업과 국토관리사업에서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고 도처에 수많은 현대적인 경공업생산기지, 축산기지, 양어기지들이 일떠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가져 오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꽃 피워 나가시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건설업적을 빛내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자욱은 불면불휴의 현지지도의 길에 력력히 새겨 져 있다. 최전선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과학연구기지들과 건설장에로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나가시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에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되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밝은 전망이 열려 지게 되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력사가 끝없이 흐르게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주체혁명위업의 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새 세기의 진군을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력사는 곧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의 계승이다.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업적이 더욱 빛나고 있으며 수령님의 영생위업이 담보되여 있다.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존함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영원히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을 빛나는 승리에로 힘 있게 고무추동할것이며 수령님은 인류의 위대한 태양으로 영생하실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주체위업의 완성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 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신념이며 확고한 의지입니다.≫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는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고의 긍지이며 최대의 행운이다. 지금 태양절을 맞이한 우리 인민들의 가슴은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충성의 열정으로 끓어 번지고 있다. 우리 인민이 터치는 환호성은 자주적인민의 참된 삶을 안겨 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표시이며 천만군민이 심장깊이 다지는 맹세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철석의 의지이다. 우리는 이 맹세를 지켜 세기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김일성**민족의 필승의 기상과 기개를 온 누리에 떨쳐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새 세기의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은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기 위한 충성의 진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사상과 업적이 있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오늘의 희망찬 새 세기가 있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양양한 미래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답게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고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 업적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견결히 옹호고수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구현하는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구한 혁명의 로정에서 이룩하신 령도업적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 진군에서 더 큰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식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뚫고 수령님식대로 대담하게 창조하고 변혁해 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민족제일주의정신,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고 수령님의 력사를 세기를 이어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오늘의 21세기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세기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뛰여 난 정치실력과 풍부한 투쟁경험,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하여 21세기 태양으로 높이 칭송 받고 계신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언제나 백발백중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령도이며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천지개벽을 안아 오는 위대한 령도이다. 사상리론에서도 최고이고 령도예술에서도 최고이며 덕망에서도 최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군대, 국가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다.

우리는 세계가 백전백승의 선군령장, 사회주의정치의 원로로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따라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모든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수령결사옹위는 영원한 실천의 구호, 생활의 구호로 되고 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불굴의 전사,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와도 장군님과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신념의 동지, 의리의 동지가 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살도록 하려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이였다. 우리는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자립경제의 현실적요구와 전망에 맞게 나라의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면서 전반적인민경제의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라남의 봉화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 탄생 90돐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영웅적투쟁을 벌리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 돌격전을 계속 힘차게 벌려 나가야 한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이며 민족최대의 과업이다.

내외의 호전분자들과 반통일세력들이 아무리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지만 자주의 궤도 따라 온 겨레가 화해와 단합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사적흐름을 절대로 가로 막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은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민족적경사의 해인 올해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국면을 열어 놓아야 한다.

세기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는 우리 조국과 혁명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이 우리 인민을 백승의 위훈에로 고무해 주고 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담보해 주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시작한 우리 혁명을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백두의 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 나갈것이며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반드시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붉은기를 휘날릴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일심단결하여 선군기치를 높이 들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힘 있게 떨치자.

(끝)

F-X사업은 ≪미국 퍼주기≫

F-X공동행동, 2차 범국민대회 진행

≪지금까지 미국 무기를 사들여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F-15K를 선정하는 것은 ≪미국 퍼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 공동행동≫(이하 F-X 공동행동) 주최로 17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열린 ≪F-X 사업 외압의혹 진상규명과 F-15K 내정 철회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김종철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 준비위원장은 국방부의 대미예속적인 정책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철 준비위원장은 ≪얼마전 돌아가신 최옥란 열사는 26만원의 생계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았는데 이것은 F-X사업 예산의 50만분의 1도 안된다≫며 ≪진정한 안보는 살상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평화의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데 있다≫고 F-X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먼저 얼마전 김해에 추락한 비행기 사고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이야기를 시작한 후 ≪공교롭게도 이번 사고 비행기의 제작사가 보잉사였다≫며 ≪우리의 젊은 공군 조종사들이 F-15K를 타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냐≫고 F-15K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홍근수 상임대표는 ≪국민 80%이상이 반대하고, 정작 타고 다니는 공군장교들까지 반대하자 구속해버리는 국방부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주장한 뒤 ≪일설에 미국이 햇볕정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F-15K구매를 강요했다는 말이 있는데 F-15K를 도입하면 남북화해는 고사하고 한반도 통일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범국민대회는 자통협,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27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F-X공동행동이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것으로 최근 언론에서 검찰수사중인 최규선씨의 국방장관 로비보도가 더해진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국방부가 F-X사업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발언을 통해 ≪F-X사업이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부 미국을 추종하는 군인들에 의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5조 8천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F-X사업의 무수한 의혹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국정조사와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태호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친인척비리를 캐내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조·중·동마저도 미국과 관련된 F-X사업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국회와 감사원, 언론이 침묵한다 하더라도 F-X사업 의혹규명과 연기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F-X사업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참가자들은 △F-X외압 의혹 진상규명과 F-15K내정 철회 △국정조사권과 감사권 발동 △성역없는 F-15K 로비 의혹 수사 △F-X사업 연기와 전면 재검토 등의 요구조건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 후 F-15K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42833명의 국민서명을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한편, 국방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F-X사업에 대한 거센 반발과, 최근 대통령 친인척의 로비의혹에도 불구하고 오는 19일 2단계 평가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동렬 기자
통일뉴스 2002/04/17

문정현신부의 미대사관앞 노숙투쟁

F-15K관련 미국 규탄대회 참가자 연행 항의

4월 16일 오후 2시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매향리범대위, 미군기지공대위 회원 30여명은 열린시민공원에서 F-15K구매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항의 월례집회를 열었다.

문정현 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F-15K를 도입하는 것에 한국정부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5K를 도입하려는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무기를 만들고 파는 것도 사는 것도 반대한다≫며 F-15K 구매를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자통협의 상임대표인 홍근수 목사는 ≪6.15 공동선언 정신을 존중한다면 F-X사업 자체를 전면 폐기하라≫며, 민족자주를 원한다면 경찰은 이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사관 주변 100m 이내에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수십 명의 전경이 달려들어 젊은 남자들을 하나씩 강제 연행했다. 그리고 20여명의 여경들까지 동원하여 여성 참석자들까지 강제 연행했다.

하지만, 주최측은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행하여 집회를 마쳤으며,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문정현 신부와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기학(자통협 정책위원장), 이관복(박정희기념건립반대 상임대표) 씨 등과 수사 2명 수녀 2명 등 총 17명의 사회단체 회원 15명은 16일 밤 현재 철야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이들은 1999년 10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미국대사관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데, 불평등한 소파개정, 매향리국제폭격장 폐쇄, 미군기지 반환, 전쟁반대, 부시방한반대 등의 주제를 가지고 3년째 집회를 하고 있으며 오늘로 제31차에 이르고 있다.

초기에 경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대사관에서 100미터 이내 지점≫이라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불허했으나 협상을 통해 100미터 지점에서 2년 이상 집회를 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찰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하였다. 종로경찰서는 ≪이곳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다며 지난 달은 집회 참석자 20여명을 강제 연행하여 3시간 동안 전경차에 감금시킨 뒤 풀어주기도 했다.

한 시위 관계자는 ≪경찰의 태도가 이같이 변한 것은 미국의 F-15K 강매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높아지고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취한 정치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어제 너무나 더워 얇게 옷을 입고 왔더니, 지금은 너무나 춥다≫며 ≪그러나 우리는 오늘밤 시위를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두희기자
오마이뉴스 2002/04/16

美주력기 F15-E 부품 수급체계 심각

한국 공군 차기 전투기로 사실상 선정된 F-15K의 원형인 미국 공군의 F-15E가 부품 수급체계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미 잡지 ≪에어포스≫ 최근호가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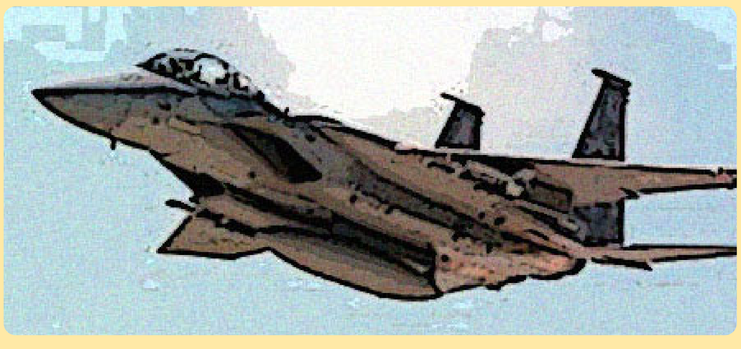
잡지는 미국의 모든 군사조직에서 동일종류 장비의 부품을 뜯어 다른 무기에 사용하는 이른바 ≪동류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E의 경우 동류전환이 평균치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도했다. 미 공군은 2000년 한해동안 28개 유형의 군용기에서 동류전환을 실시했는데 이가운데 전투기 F-15E를 비롯 F-16C, F-15C 그리고 장거리 폭격기 B-1B 등 4개 기종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또 미 공군의 동류전환 비율은 100회 출격시 평균 11.6건을 기록했으며 이중 F-15E와 F-15C의 경우 평균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미 공군과 해군에서 대략 85만건의 동류전환이 시행됐고 이에 들어간 유지·보수시간은 530만시간으로 집계됐다.

회계감사원은 동류전환이 늘어나면서 유지·보수 시간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군의 사기에 영향을 주고 전투기가 오랫동안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문관현기자
연합뉴스 2002/04/17



언론의 후보검증 보도를 검증하겠다

선감연 18일 ≪언론의 후보검증 보도 점검≫ 토론회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언론의 무책임한 중계보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언론의 선거관련보도는 어떠해야 할까.

저널리즘이 오락, 선전, 픽션, 또는 예술과 다른 점은 사건의 발생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실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쳐 보도하는 데 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흔히 논쟁 당사자의 주장을 인용부호를 달아서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런 보도 태도는 안일한 보도자세일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를 위한 교활한 수단에 불과하다.≫ 성균관대 이효성 교수가 18일 열릴 예정인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선감연) 주최 토론회의 기조발제문에서 지적한 말이다.

이효성 교수는 후보 검증에 대해 ≪검증은 검사하여 증명한다는 뜻≫이라며 ≪검사는 잘못이나 흠을 찾는 ≪inspection≫과 성격·조건·질 등을 결정하기 위한 ≪examination≫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 증명은 증거로서 확실하게 한다는 뜻으로 진실·정확성·실재성을 수립하는 행위이며 검증의 생명은 그 증명에 있다≫고 설명했다.

즉 ≪증명되지 않은 검사는 검증이라 부를 수 없으며 증명이 동반되지 않은 검사는 완결된 검증이 아닌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후보 검증 또한 다른 후보진영에서 행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에서 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증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문제는) 본의 아니게 언론인이 전하는 사실은 대개 사건에 관한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언론이 전하는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관한 진술≫에 불과해 그것의 정확성과 진실성은 증명돼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

확인 안된 의혹 중계보도는 검증이 아니다

그런데 사건에 관한 진술은 진술자의 입장, 즉 관찰자의 위치나 능력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기자는 자신이 보도하려는 내용이 특정한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지를 거듭 되물어야 한다는 게 이 교수 발제문의 요지다.

이 교수가 대선후보 검증과 관련해 언론의 검증태도를 지적한 이유는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이인제 후보측의 노무현 후보에 대한 장인 좌익활동설, 김심작용설, 연청개입설, 메이저언론 국유화 및 동아일보 폐간발언설 등의 폭로과정에 있다.

이 교수는 이인제 후보측의 무책임한 폭로와 정치공세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우리 언론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이런 폭로에 관한 보도에서 단순한 중계식 보도를 통해 의혹을 부풀리거나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그 설의 진위를 검증하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결론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검증이 아니고 그 의혹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검증≫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이인제 후보측이나 언론이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노무현 후보에 관한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증된 것이고 따라서 그 의혹과 관련하여 노 후보는 검증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11일 선감연 발족, 46개 언론·시민·종교단체 참여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선감연은 지난 11일 46개 언론·시민·종교단체가 모여 발족한 기구로 지난 92년 총선관련 보도감시를 목적으로 최초 구성된 이후 매번 선거 때마다 공정보도감시활동을 해오고 있다.

선감연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전국언론노조를 포함해 경실련 민변 민언련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환경운동연합 등이다. 선감연 공동대표는 김용백 언론노조 위원장,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 송두환 민변 회장,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4명이 맡고 있다.

선감연의 선거보도 감시는 첫째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보도와 균등성, 형평성에 입각한 공정성 보장, 둘째 지역감정 조장이나 음모론, 흑색선전, 반민족적·반통일적 내용의 공방 등 선거보도의 부정적 선거분위기 봉쇄, 셋째 정책과 공약의 대결 유도와 쟁점사항 정밀진단 등 민주적 기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선감연은 또 선거보도감시활동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무책임한 양비·양시론적 보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보도 △정치 불신 조장하는 보도 △선정적인 경마식 보도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를 왜곡·무시하는 보도 △불공정·편파 보도 △검증없는 흑색선전·후보비방 보도 등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게 항의전화나 팩스를 보낼 것과 선감연 사무처 제보, 또는 시청·구독거부 등을 행동지침으로 밝혔다.

선감연 사무처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실(프레스센터 18층, 전화번호: 02-732-7077)에 있으며 홈페이지는 www.pcmr.or.kr이다. 선감연은 앞으로 상담과 변호, 홍보, 그리고 연대활동 등을 통해 향후 선거관련 보도를 모니터하고 보고서 등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영태기자
프레시안 2002/04/17

진보정당 지방선거 참여 논의 활발

≪기존 정당에 식상한 유권자들이 우리에게 표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인권, 역사를 중시하는 진보정당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울산에서 2명의 기초단체장을 진출시킨 민주노동당은 대전 유성과 대덕, 충남 아산지역 등 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1-2명 당선을 목표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유성지역은 과기노조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기초의원에 3명, 광역의원에 1명의 후보를 낼 예정이며 대덕구 지역에서도 1-2명의 후보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충남 아산에서는 현대와 만도공조 노조에서 후보자를 선발, 기초 2명, 광역 1명의 후보를 내기로 했다.

또 외부 영입이나 자체 희망자가 있을 경우 유성에서 구청장 후보를 내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에 대전과 충남지역 후보를 각각 낼 계획이다.

사회당은 현재 지구당별로 지방선거 전에 창당작업을 마치고 지방의회에 적극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4-5군데 광역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참신하고 젊은 30대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지방선거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김명이 유성구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진보정당도 이제는 지방자치에 뿌리를 내릴 여건이 충분하다≫며 ≪아직 사회당이 일반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가능성 있는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선에 참여할 뜻을 밝힌 푸른정치연합도 그 전초전인 지방선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나 아직 충청지역은 기반이 미약, 구체적인 움직임없이 중앙정치의 변수 등을 예의주시한 채 참여폭과 시기 등에 관해 내부 검토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조성민기자
연합뉴스 2002/04/16

호화빌라 실소유주는 이회창?

이회창 대세론의 발목을 잡았던 호화빌라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인가.

함승희·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상임위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호화빌라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함승희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서울 가회동 빌라는 이 총재의 부인 한인옥 씨가 직접 구입해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이날 ≪이 전 총재의 가회동 빌라는 한인옥 씨가 고급주택거래업체인 신우주택을 통해 15억 원에 매입한 뒤 차명으로 관리해왔다≫며 ≪이 빌라에 대한 이 전 총재의 그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이어 ≪만약 이 전 총재의 주장대로 사돈 명의의 집을 빌려 사용한 것이라면 검찰은 당연히 증여세 포탈 여부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은 함 의원의 주장에서 한발 더 나갔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 전 총재가 가회동 빌라의 실소유주란 주장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며 ≪고급빌라 중개업체인 ≪신우≫에 이 전 총재 부부가 빌라 구입을 의뢰, 14억 원에 한 채를 구입하고 중개자에게 ≪비밀을 지켜 달라≫고 요구한 뒤 3천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줬다고 한다≫고 밝혔다.

함 의원과 이 의원이 주장하는 빌라 매입금액(15억 원과 14억 원)은 다르지만 이회창 후보가 가회동 경남빌라를 직접 구입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는 그동안 ≪사돈이 빌려줘서 살고 있다≫는 이 후보의 해명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측은 ≪터무니없는 음해 작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함승희·이재정 의원의 ≪직접 구입, 차명관리≫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는 국민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검사출신인 함 의원은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이 전 총재 직전 소유주의 자금(매매대금)을 역추적해보면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영식기자
오마이뉴스 2002/04/17

금강산연대, ≪축하엽서 보내기≫ 거리 캠페인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금강산사랑연대)는 16일 낮12시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겨레끼리 축하엽서 서로 보내기≫ 1차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거리 캠페인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금강산사랑연대 회원들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축하엽서를 나눠주면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금강산사랑연대는 축하엽서 보내기 운동을 거리 캠페인뿐만 아니라 참가단체들을 중심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집행위원장은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모아진 축하엽서는 오는 29일 아리랑 개막식에 맞춰, 현대 아산에 전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집행위원장은 또, 평화카라반(Caravan) 행사가 진행될 때까지 북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산사랑우체국 개설과 관련, 금강산사랑연대는 현대 아산 측과 금강산사랑우체국, 성금함, 지정 기탁소 설치 등에 협의가 됐으나 정부와는 지난 13일 통일부에 축하엽서 등 관련 문서를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유민주민족회의(대표 이철승) 등 8개 반공단체는 오늘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금강산 관광 국민 혈세 퍼주기 성토 및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최근 사회전반에 불고 있는 화해의 분위기로 인해 보수세력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송정미기자
통일뉴스 2002/04/16

축하엽서 앞면

축하업서 뒷면

시민 · 노동운동 연대로 ≪발전산업 민영화≫ 대응해야

민주노총, 집행부 사퇴이후 발전산업 민영화 대책 토론회 개최

지난 3일 민주노총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 2일 타결된 발전노조 합의안이 폐기되고 집행부전원이 책임 사퇴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 주최로 ≪최근의 민주노총 사태에 대한 설명과 발전소 민영화 유보와 공론화를 위한 대책마련 각계 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2시경 서울 명동 향린 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발전소 파업기간동안 각계 성명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그동안의 경과를 평가하고 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노총의 경과보고에 이어 시민사회학계 각 단체 대표들의 의견이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민주노총의 노사정 합의에 대해 그동안 함께 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그동안 시혜적인 입장에서 발전사태를 관망해온 시민단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조율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연대의 틀을 마련하고 의사소통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4.2일 민주노총의 교섭이 타결될 때 각 시민단체 대표들은 발전소민영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밤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불일치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민영화를 자기 문제화하지 않은 시민단체의 성찰이 필요하며, 원 위치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교협 김윤자 교수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상황인식과 방침의 공유가 되지 않은 문제를 개혁진영연대의 어려움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영화문제는 시민사회단체가 늦게 합류해 발전노조의 고립된 싸움이었으며 현재 각계각층의 정치적 접점이 줄어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폭넓은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조직국장은 ≪민주노총이 동고동락하는 단체에 대해 의견주체로 판단하지 않고 교섭으로 모든 상황을 종료하려 했다≫고 민교협 노중기 교수는 ≪조합원을 설득시키지 못할 타협이라면 타결하지 말았어야 했다≫ 고 각각 비판했으며 노중기 교수는 구조적으로 의사수렴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대안으로 꼽았다.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과 시민사회의 자성의 목소리에 이어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제기됐다.

민교협 김상곤 교수는 ≪민영화문제는 발전노조를 넘어서 국민적 이슈로 민주노총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고 밝히고 ≪민주노총에 대한 성토를 넘어서 민영화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계에서 자성적 비판으로 교수, 연구자, 관련 공기업 정책 담당자 20여명으로 구성된 공공부문 연구기획단이 16일 모임을 앞두고 있다고 밝히고 4월내로 토론회를 열어 실천적 이론과 현장에서의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 명호 간사는 연대와 성찰 사회포럼에서 논의되었던 친환경적 전력산업구조개편논의를 확대하고 환경단체들이 연대해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민영화에 대해 시민단체 속에서 논의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정부의 민영화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소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는 참석자 모두가 뜻을 함께 했으며 범국민연대의 활동을 통해 논의를 확대해 나가기로 잠정 결론 지었다.

한편 발전회사에 의해 자행되는 발전노조 탄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발전노조 탄압 철회와 조직개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 대표들이 민영화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론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존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연대에 민교협 · 교수노조 · 참여연대 · 경실련 · 환경연합이 합류해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범국민연대는 대안모색을 위해 18일 오전 민변에서의 임시 모임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김윤희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16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열 가지 논제 (3)

서론
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2.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4.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 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 수정
▶ 6. 민족해방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미군철거의 의의
7.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 공동선언의 지향
8.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위와 임무
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결론

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 수정 (2)

필자가 지난해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전선과 신식민지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지역통일전선을 구분하고 전자를 ≪민족통일전선≫으로, 후자를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논문에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통일전선에 대하여 논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기치로 든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과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든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비록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들이 각기 조금씩 다르고 강조점이 달라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두 개의 전선론≫은 통일전선에 관련한 이해에서 대체로 전반적인 동의를 얻은 이론으로 일단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논문을 집필하면서 ≪두 개의 전선론≫이 ≪남북관계론≫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하여 이론적 착오를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두 개의 전선론≫을 ≪남북관계론≫의 낙후한 관점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재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종전의 ≪두 개의 전선론≫을 ≪하나의 주체와 두 역량, 하나의 전선과 두 임무론≫으로 보완 · 수정합니다. 필자의 재해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조국통일이라는 양대 임무를 수행합니다. 혁명의 주체는 하나이지만 그 지위, 역할, 역량은 서로 구분됩니다. 하나의 혁명주체는 주도와 방조로 역할을 분담하게 되며, 그에 따라 주도와 방조의 역량으로 편성됩니다.

둘째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는,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을 주도역량으로 하고, 그리고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연대 · 집결한 광대한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방조역량으로 하여 자기의 역량을 편성합니다. 또한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기치로 든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조국통일역량을 주도역량으로 하고, 그리고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든 전국적 통일전선의 통일애국역량을 방조역량으로 하여 자기의 역량을 편성합니다.

셋째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은 하나의 주체가 지니고 있는 두 종류의 역량입니다. 인민대중의 통일적 역량이 양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조국통일위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위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하나이므로, 그 위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도 하나이어야 마땅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전국적 통일전선과 조국통일위업에 복무하는 전국적 통일전선은 두 개의 전선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적 전선입니다. 조선민족의 통일전선은 하나이며, 그 유일적인 통일전선이 조국통일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양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조국통일위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도 하나이고, 통일전선도 하나라는 사실은, 조국통일위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영도하는 사상이 하나의 사상이라는 사실과 부합하며, 또한 조국통일전략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이 하나의 영도체계 안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부합합니다.

여섯째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은 신식민지에만 존재하는 지역통일전선이 아니라 혁명기지까지 망라하는 전국적 통일전선으로 확대하여 사고해야 합니다. 또한 조국통일위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은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라는 두 단계의 통일전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의 통일전선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곱째로, 지금 신식민지에서는 독자적인 발전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존속하는 지역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통일전선이 장차 전국적 통일전선에 해소 ·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1949년 6월에 평양에서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조선노동당을 영도적 구심체로 하여 형성된 전국적 통일전선조직이었습니다. ≪조국전선≫은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과 자주적 민주역량을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의 역량으로 연대 · 집결시킨 전국적 통일전선조직이었습니다. 그 전선조직은 미제가 자행한 분할점령과 탄압말살책동 때문에 더 이상 강화 · 발전되지 못하고, 미완의 전국적 통일전선조직으로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형성되고 있는 전국적 통일전선은 ≪조국전선≫의 역사적 경험을 계승 · 발전시킨 새로운 통일전선으로 될 것입니다.

6. 민족해방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미군철거의 의의

신식민지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미제는 신식민체제를 계속 장악하고 혁명기지를 말살하기 위하여 점령군을 주둔시킵니다. 그러므로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게 되면 신식민체제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습니다. 신식민체제는 자생력으로 성립된 체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강제된 침략의 산물이기 때문에, 제국주의 점령정책이 파기되면 그 체제도 또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도하려면 미제의 점령군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민족해방혁명의 선차적 임무는 미군철거투쟁으로 집중됩니다. 미제의 점령군을 방치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면 신식민체제는 존립하기 힘들게 되며, 신식민정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는 문제는 민족해방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제는 신식민지에 주둔시키고 있는 점령군을 스스로 철거해가지 않습니다. 점령군을 철거하면 신식민체제가 붕괴하고 말 것이므로 절대로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식민지에서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시키는 유일한 길은 민족해방혁명에 의한 격퇴의 방도밖에 없습니다. 제국주의 점령군의 철거는 민족해방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철칙입니다.

제국주의 점령군을 격퇴하는 민족해방혁명을 혁명무력이 선도해야 한다는 것은 민족해방혁명의 근본원리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진보적 인류의 민족해방혁명운동에 제시하신 선군혁명사상의 진수입니다.

제국주의 점령군을 격퇴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인 민족해방혁명의 수행과정에서 제국주의와의 평화적 해결이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족해방혁명은 비평화적인 방도에 의하여, 즉 민족해방전쟁에 의하여 최종적인 승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혁명은 낡은 세력과 새로운 세력 사이에서의 힘의 대결을 불가피하게 동반합니다. 그러한 힘의 대결이 가장 격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역량과 자본가계급의 반동권력 사이에서 가장 격렬한 형태로 진행되는 힘의 대결은 계급해방전쟁(내전)이며, 반제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가장 격렬한 형태로 진행되는 힘의 대결은 민족해방전쟁입니다. 그런 까닭에 해방전쟁을 회피하고 제국주의자들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민족해방혁명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우리 나라의 반제투쟁사를 돌이켜보면,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암울한 시기에 신돌석, 박용만, 홍범도, 신채호, 김구 같은 민족주의 애국선열들은 일제 침략군을 격퇴하고 조선민족을 해방하고 조선이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항일무장투쟁론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항일무장투쟁론은 조선인민의 광대한 통일전선역량을 기반으로 삼지 못한 한계 때문에 한낱 주장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영웅적 조선인민은 **김일성** 주석님의 영도를 따라 통일전선역량의 기반을 축성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그 기반 위에서 무장을 들고 일제 관동군을 타격하는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항일혁명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듯이, 제국주의 점령군을 철거하는 민족해방혁명운동이 최종단계에로 상승 · 발전하면 해방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족해방혁명이 해방전쟁으로 수행된다고 했을 때, 해방전쟁이라는 개념을 군사적 측면에서 해석하면 두 가지 경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혁명무력과 침략무력이 충돌하는 전면전이 발발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혁명무력과 침략무력의 첨예한 무력대결 상황에서 혁명무력이 압도적인 전략전술로 제국주의자들을 굴복시키고 점령군을 철거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만을 전쟁으로 보고, 후자를 평화적 해결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혁명무력에 의한 해결입니다. 후자를 무혈승리라고도 표현합니다.

→

지금 조선인민군이 미제에 맞서서 첨예한 무력대결을 벌이고 있는 민족해방혁명의 군사적 상황은 후자의 경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족해방혁명의 영도자이시며 민족해방전쟁의 군사전략가이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지휘하시는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미제를 굴복시키고 그 점령군을 철거시키는 전략적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전술적 공세를 취하면서 가세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이 미제의 침략무력을 제압하고 미제를 굴복시킬 만큼 과연 강한가 하는 군사문제를 논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미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자기를 위협하는 3대 군사강국으로 보고 있다는 군사문제연구자들의 견해를 지적합니다. 미제가 군사강국인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침략전쟁을 도발할 수 없고 그 나라들의 영토에 점령군을 주둔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제는 반제군사강국으로 등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영토에 점령군을 더 이상 주둔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조선인민군이 선군혁명사상을 기치로 들고 민족해방혁명의 최전선에서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시키기 위해 첨예한 무력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전술적 공세를 취하면서 가세하는 양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이 미제의 정치·군사적 전략거점들에 대한 전략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 통일전선의 투쟁력이 미제의 신식민체제에 대한 전술적 공세를 취하면서 정치적 압박을 집중하게 되면, 미제는 그 강력한 혁명공세를 견디지 못하여 결국 굴복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점령군을 신식민지에서 철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전체 조선민족의 민족자주역량이 발휘하는 거대한 위력에 제압 당한 미제는 머지 않아 별수 없이 자기의 점령군을 끌고 패퇴의 길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시키는 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이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의 민족해방혁명사를 학습하고, 민족해방혁명의 사상과 전략을 알게 되면 그러한 의문은 제기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 관동군을 타격하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항일운동세력은 팔짱을 끼고 구경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항일운동세력은 일제를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반일애국역량을 조직·동원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축성하고 그 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를 건설하였으며, 항일투쟁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민항쟁의 최후결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반일민족통일전선이 준비하였던 전민항쟁의 최후결전은 혁명적 대사변, 또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민족해방전쟁과 조국광복회의 민족해방운동은 투쟁방식도 서로 다르고 투쟁현장도 서로 달랐지만 시종일관하게 하나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을 따르는 조선민족의 주체역량, 하나의 혁명영도체계로 통일된 조선민족의 주체역량이 수행한 위대한 민족해방혁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오늘 조선민족의 영웅적 혁명전통을 계승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총집결하고 있는 21세기의 통일전선은, 무적필승의 반제강군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과 더불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민족자주역량으로 혁명운동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반미자주화운동과 미군철거투쟁은 그 거대한 통일전선운동의 일부입니다. 신식민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우리의 반미자주화운동과 미군철거투쟁이 통일전선운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협소한 관점이므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영도하는 주체도 조선노동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총집결하고 있는 전국적 통일전선의 영도조직도 또한 조선노동당입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며, 전국적 통일전선은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의하여, 그 영도를 구심력으로 하여 형성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선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의 위력적인 투쟁력은, 동요하는 신식민체제를 보존해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 미제를 기어이 굴복시키고 말 것이며 미제의 점령군을 우리 영토에서 완전히 철거시킬 것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혁명무력과 통일전선역량의 강력한 투쟁에 의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혁명투쟁에서 혁명무력과 통일전선이 서로 다른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것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략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입니다. 전자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후자는 방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설명이 더 요구되지 않을 만큼 자명한 선군혁명사상의 전략적 방침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만일 미제의 점령군이 물러가게 되면 조선인민군과 신식민지 군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결국 동족파멸의 재앙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반도의 군사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착오입니다. 신식민지 군대는 원래 미제의 점령군에 의해서 창설·육성되었고 지난 반세기 동안 지휘·통제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미제의 지휘·통제가 없으면 자력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기형화된 예속군대입니다. 신식민지 군대는 미제가 판매한 고가의 무기들과 자체로 생산한 현대적인 무기들로 요란하게 무장하기는 했지만,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이 없는 군대입니다.

신식민지 군대에게 있어서 산만하고 미숙한 군령체계, 병사들의 허약한 전투의지, 그리고 부정부패와 군기문란도 심각한 약점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독자적인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이끌어갈 지휘관이 없으며, 전쟁을 수행할 독자적인 군사정보체계가 없으며 전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신식민지 군대의 전략과 군사정보체계는 미제의 점령군이 전부 틀어쥐고 있습니다. 전략적 지휘를 책임질 군사지휘관도 없고 군사정보체계도 부실한 예속군대가 들고 있는 전술무기들은 전투상황에 돌입해서도 요란한 장식물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미제의 점령군이 철거되더라도 신식민지 군대는 조선인민군을 상대로 단독적인 북침전쟁을 도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매우 유사한 처지에 있었던 외국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30여 년 전 미제가 베트남전쟁에서 패하여 베트남에서 퇴각하였을 때, 미제의 신식민지예속군대였던 남베트남 군대는 미제가 철군하면서 이양한 막대한 양의 최신 무기로 무장하였음에도 2년이 채 못가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미제가 퇴각한 뒤에도 베트남에서는 혁명무력과 반혁명무력 사이의 내전이 계속되었지만, 그러한 동족간의 내전은 불과 2년도 가지 못하여 혁명무력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베트남전쟁의 전 기간 동안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던 것은, 마지막 2년 남짓 진행되었던 내전이 아니라, 베트남인민의 혁명무력과 미제의 침략무력 사이에서 전개되었던 기나긴 민족해방전쟁이었습니다.

지금 미제의 신식민지에서는 점령군의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 민족반역자들이 조작한 소문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군이 나가면 조선인민군이 ≪남침≫한다는 악성 유언비어가 그것입니다. 저들의 ≪남침설≫ 유포행위는 미제의 신식민지 강점을 ≪안보유지≫라는 기만술책으로 은폐하려는 의도에 따라 연출되고 있는 가증스러운 사기극입니다.

미제와 민족반역자들이 떠들어대는 ≪남침≫을 조선노동당의 시각에서 보면 무력통일로 됩니다. 위에서 논한 대로 준전시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족해방혁명은 장차 무혈승리를 이룩할 것이며, 그 최후승리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는 민족해방혁명이 무혈승리를 이룩하면 조선인민군이 그 기세를 몰아 무력통일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력통일론도 이치에 닿지 않는 논리입니다.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이 수행해야 할 기본임무는 미제의 점령군을 격퇴하는 민족해방전쟁이지 내전의 한 형태인 통일전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통일전쟁이란 민족내부를 분열시킨 반란세력을 진압하는 내전입니다.

미제의 점령군이 민족자주역량의 무혈승리에 의하여 신식민지에서 철퇴하면 그 앞잡이 민족반역세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통치기반을 상실할 터인데 무엇 때문에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내전(통일전쟁)을 다시 벌여야 하겠습니까?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한 이후에 민족반역세력을 제거하는 문제는 통일전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이 논문에서 필자가 사용하는 정치적 해결이라는 개념은 전략적 공세기에서의 민중봉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민중봉기는 민족민주운동권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민항쟁이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민족자주역량의 무혈승리에 의하여 미제의 점령군이 철퇴되는 시기는, 신식민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족반역세력을 제거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적 공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공세기는 미제의 점령군이 철거되자 위기감을 느낀 국제독점자본이 동반적으로 철수함으로써 신식민지예속경제가 졸지에 수습불능의 파탄(금융위기와 대량실업에 의한 파탄)에 빠지고 인민대중의 생존권이 전면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는 총체적 위기가 발생하는 격동기입니다. 생존권을 전면적으로 위협 당하게 된 인민대중은 노동계급의 총파업투쟁을 선봉으로 하는 격렬한 생존권 투쟁으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역통일전선역량은 인민대중의 생존권 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상승·발전시키면서 자기의 투쟁력을 비상히 확장·강화할 것입니다. 붕괴되어 가는 신식민체제에 매달려 있는 민족반역세력 보다 지역통일전선역량이 훨씬 우세하게 됨으로써 전세는 일거에 역전될 것입니다.

전략적 공세기에 들어서면 지역통일전선역량은 혁명기지의 통일전선역량과 통합되어 명실공히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함으로써 정세를 개변시키게 될 것이며, 미제 점령군의 철퇴 이후에 결정적으로 약화된 민족반역세력을 우세한 역량으로 타격하는 전략적 총공세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전략적 공세는 민족반역세력의 정치적 전략거점들을 집중타격하면서 급속히 확산되는 대규모 민중봉기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략적 공세기의 민중봉기는, 자연발생적이고 산발적인 도시폭동이 아니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에 의거한 전민항쟁으로 전개될 것이며, 1980년의 광주민중항쟁에서 입증된 민중봉기의 집중타격력과 1987년의 민주항쟁 및 노동자대투쟁에서 입증된 민중봉기의 폭발적인 확산력이 상호결합된 미증유의 총공세로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은 1980년대의 인민대중이 아니며, 오늘의 민족민주운동세력은 1980년대의 운동세력이 아닙니다. 민중봉기의 총공세가 민족반역세력의 정치적 전략거점을 타격하면, 저들은 자기들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력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진압하려고 발버둥치겠지만 전세를 역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무질서한 패주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며 신식민정권은 전복·와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적 대사변, 또는 조국통일의 대사변이라고 부르는 최후승리의 씨나리오입니다. (내일 계속)

대표집필자 최성원